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

‘든든한 울타리’ 정읍시 가족센터가 중심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가족의 형태와 의미 또한 다변화하고 있다. 정읍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결혼 이민자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은 물론, 모든 형태의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가족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2022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정읍시 가족센터’가 있다. 이곳은 가족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건강한 가정,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

▲급변하는 사회, 가족의 울타리를 더욱 단단하게... 맞춤형 가족관계 프로그램 운영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의 삶이 다층적으로 변화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불화 문제를 경험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각적인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부간의 소통 부재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부부관계 회복 상담’, 세대 차이와 가치관 충돌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부모-자녀 상담’은 물론,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그리고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경험한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출발을 돕는 ‘이혼 전·후 갈등상담’ 등 생애주기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가족 다문화가족 특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은 위기 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사회적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계 없는 사랑, 함께 성장하는 정읍... 다문화가족 특성화 서비스 강화

시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감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특성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제공하고 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읍시의 노력은 다방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돕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행정기관 이용,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생애주기별 맞춤 상담 다문화가족 특화 지원 아이 돌봄까지 ‘원스톱’

시설 확충·신규사업 확대 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

서비스 지원’ △자녀가 부모의 모국어를 함께 배우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녀 이중언어 교육 지원’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한국 사회 적응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설계 지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 지원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통번역사와 언어발달지도사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더욱 많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로 제공되는 출장 통번역 지원은 이미 많은 결혼이민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만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 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후 1:1 개별 맞춤 수업을 진행하는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읍, 촘촘한 아이돌봄 지원으로 부모 어깨는 가볍게!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시는 아이 양육의 어려움을 지역사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족품앗이 활동과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더 나아가 시는 올해 3월부터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시간을 확대해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다양한 놀이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주말에도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는 즐거운 놀이 경험을, 부모에게는 소중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읍’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모든 가족을 위한 열린 공간, 정읍시 가족센터 새 단장으로 편의성 높인다

시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정읍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내 가족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등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하며 교류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3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

이 기금을 활용해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장하고, 상담실, 교육실 등 내부 시설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설 확충·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가족센터 이용자들이

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넘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존중받고 환대받는 따뜻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읍에서 함께 웃어요...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과 가족한마당 행사 개최

시는 이 밖에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지원 사업과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각 가정에는 심사를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결혼이민자들이 고향의 가족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한국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 초에는 시민,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하는 ‘가족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다채로운 문화 체험 부스와 공연, 음식 나눔 등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열린 공동체로서의 정읍시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시장은 “가족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행복의 원천”이라며 “정읍시는 모든 형태의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을 펼쳐,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살고 싶은 정읍’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